5월 전주문화축제 성공 이끈다

완산구, 국제영화제 · 한지문화축제 · 문화재야행 등 위해 비상근무 체제 돌입

5월 전주국제영화제를 비롯한 전주의 문화축제를 위한 교통·가로정비·청소·위생 등의 준비가 마쳐졌다.

전주시 완산구는 5월 2일 개막하는 전주국제영화제를 시작으로 5월 4일 전주한지문화축제, 5월 25일~26일 열리는 2019년 전주문화재야행 등 봄과 함께 찾아온 전주의 문화축제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위한 편의 제공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영화제 기간에는 전주한지문화축제가 함께 열리고,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3일간의 연휴기간과 맞물려 있는 만큼 전주시민은 물론 국내외 많은 관람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완산구는 △불법 주·정차 차량 지도단속 등 교통안전대책 마련 △영화의 거리 바닥 교통표지 보수, 영화의 거리 시설물 보수 등 가로정비 △쓰레기 집중수거 및 게스트하우스 위생 점검 △행사장 주변 불법광고물 정비 등에 행정력을 총동원해 점검을 마쳤다.

완산구는 영화제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부분인 교통대책에 집중, 영화제 행사장 주변과 한지문화축제가 열리는 전통문화전당 주변, 노점과 차량혼잡으로 인한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특별 근무에 나서기로 했다.

교통통제구간 진출입 원천봉쇄, 행사장 주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에 나서는 교통단속팀은 주·야간 및 휴일 단속반 4개반 16명이 차량4대에 나눠 근무, 보행로를 확보한다.

또한, 행사장 주변 노점상단속 및 노상적치물 실태를 파악해 정비하고 노점행위 원천봉쇄 등 교통 불편을 야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로정비팀 3개반 14명이 차량 3대에 나눠 지속적인 계도·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자원위생과는 영화제 개막 전 영화의 거리와 전주한옥마을 주변 등의 적치쓰레기 사전 정비를 마쳤고 영화제기간에는 청소상황실 14명과 기동처리반 18명을 편성해 쓰레기 즉시 수거처리 등에 신속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생태공원녹지과는 전주영화제작소의 화단 정비와 영화제의 주무대인 옥토주차장 등의 환경정비 등을 마치고 관람객을 맞을 채비를 끝냈다.

또한, 건설과에서는 영화의 거리에서 옥토주차장, 전주영화제작소 등의 포트홀 긴급 복구, 가로등 작동상태 점검 등을 마쳤고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은 3개조 9명으로 불법광고물 특별정비반을 꾸려 현수막과 입간판, 배너, 에어라이트 등 행사장 주변의 불법광고물 정비를 벌이고 있다.

단속반은 야간은 물론 공휴일에도 전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깨끗한 거리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적발된 불법 광고물은 현장에서 즉시 수거하고 영화제 기간 행사장 주변 불법광고물 집중 단속에 나선다.

최락기 완산구청장은 "전주의 봄을 알리는 5월, 전주문화축제기간에 전주를 찾는 관광객, 영화 관람객들이 불편함 없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완산구 각 부서가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해 반드시 성공 축제를 이끌어 낼 것이다."고 성공개최 의지를 밝혔다.

/송효철 기자

아이들이 놀 권리 회복 위해

전주 야호놀이추진단, 서울숲 등 벤치마킹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인 전주시가 아이들을 위한 생태놀이공간을 늘리기 위한 우수사례 학습에 나섰다.

전주시 야호놀이추진단은 지난 30일 서울숲과 서울어린이대공원 등 서울시 일원에서 시민참여형 공원시설 운영방법과 어린이 놀이문화시설에 대한 우수사례를 학습하는 벤치마킹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야호놀이추진단은 전주시가 아동의 놀 권리를 지켜주고, 아동친화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현재 7개 부서의 11팀으로 구성 운영되는 TF팀이다.

이날 야호놀이추진단 30명은 서울숲 운영·관리조직인 서울숲컨서번시의 안내 하에 서울숲의 시민·민간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방법과 놀이문화공간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방법에 대해 청취했다.

또한 공원이라는 공유자산을 창조적으로 활용해 단순한 녹지서비스의 제공을 넘어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역할에 대해서도 서로 공유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다.

추진단에 따르면, 서울숲컨서번시는 서울숲 공원 수탁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현재 '서울숲은 당신과 함께 자랍니다' 라는 미션아래 △시민참여 △건강한 다양성 △공원경영 선도의 세가지 비전을 가지고 서울숲 이용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시설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추진단은 이어 서울어린이대공원을 찾아 어린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놀이터인 '맘껏 놀이터'와 장애에 대한 차별과 제한 없이 모든 어린이들이 마음껏 상상하고 활동하는 '꿈틀꿈틀 놀이터' 등을 견학했다.

시는 이날 벤치마킹을 통해 아동친화적인 놀이공간 조성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아동친화정책의 완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효철 기자

한지문화축제 추진상황 점검

전주시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제23회 전주한지문화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최종 점검에 나섰다.

시는 지난 30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김양원 부시장과 전주한지문화축제 조직위원장 및 집행위원장,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지문화축제 준비상황에 대한 현장보고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행사관련 인력운영과 안전점검, 행사장 교통대책, 청소대책 및 쓰레기처리 등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송효철 기자

색다른 누에 누에와 곤충 특별전시회가 지난 30일 전주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에서 실시된 가운데 전시회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형형색색의 누애를 만져보고 있다. 장수풍뎅이 누에와 양잠산물 등 10여종의 곤충으로 구성된 전시회는 5월 8일까지 진행된다.

전주 사회혁신센터, 사회혁신 기획협력사업 공모 시작

전주시사회혁신센터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와 전주시 후원하는 2019 사회혁신 기획협력사업' 공모가 시작됐다.

전주시사회혁신센터는 시민이 체감하는 다양한 지역현안에 대해 고민하고 활동하는 그룹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오는 5월 9일까지 '2019 사회혁신 기획협력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주시사회혁신센터에 따르면 이번 기획협력사업은 일반화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제시에 대해 지원한다.

공모 참여 자격은 전주시에 거주 또는 활동하고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단체등록증 등을 가진 단체 또는 회사가 응모할 수 있다.

기획협력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사회혁신센터 블로그에 공지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현장방문으로 접수 할 수 있다.

/송효철 기자

민주노총 전북본부, 세계노동절대회 개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본부장 노병섭)은 제129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전북에서 기념 문화제 및 세계노동절대회를 열었다.

세계노동절 기념문화제는 전북의 특색 있는 행사로 지역별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개최되는 행사이다.

또한, 기념문화제는 예술단 노동조합, 노동자 노래패, 난타, 풍물패 순으로 공연이 이어졌다.

더불어, 건설, 식당, 보건의료, 농협, 청소 등 각 직종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현장을 상징하는 작업복을 입고 나와 행진하는 퍼레이드도 진행됐다.

전북도교육청은 "각급학교에 노동절 계기교육 자료를 전달하고 5월 1일을 재량휴업일로 할 수 있음을 안내했고 전북도를 비롯한 각급 지자체에서는 5월 1일 휴일 시행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야한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5월 1일 휴일 확산을 위해 서울특별시 등에서는 올해 5월 1일 특별휴가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5월 1일은 법적휴일이지만 휴일을 보장받는 소수에 불과하다."며,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절의 의미를 새기며 기념할 수 있도록 5월 1일 휴일이 보장해야한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화장품 절도 20대 붙잡혀

매장에 진열된 화장품을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모(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30분경 전주시 완산구 모 매장에 진열된 시가 5만7000원 상당의 화장품 3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강석훈 기자

범죄신고 112 · 화재신고 119

문화재 반환협상과정 통해 본 외교전략의 중요성

전주시, 4월 중 청원공감한마당

전주시가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면서 갈수록 증가하는 국제교류·협력에 대비하기 위해 직원들의 외교역량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30일 덕진예술회관에서 시청 공무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중 청원 공감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고, 박흥신 전 프랑스 대사를 강사로 초청해 외규장각의궤 반환협상과정과 외교 교훈에 대해 배우는 특강을 실시했다.

박흥신 전 프랑스 대사는 지난 2011년, 145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외규장각 의궤의 반환협상대표로 대한민국 문화유산의 귀환에 기여했다.

외규장각의궤는 조선시대 왕실행사의 준비과정과 의식절차 등을 그림과 글씨로 상세하게 기록한 책으로, 지난 2007년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으로도 지정돼 그 역사·문화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조선시대 기록문화의 꽃이다.

그는 "정부 간 협상과 민간대표회담의 잇따른 실패 후 새로운 협상전략으로 다른 한국유물과 의궤의 등가교환을 고집하는 프랑스 측에 담대하게 대가없는 반환을 요구했다"며,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발전을 통한 국익향상을 내세우고 외규장각 도서탈취의 부당함과 비문화적 행동을 부각시켜 문화적 양심에 호소하는 협상전략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송효철 기자

여자 화장실서 강도행각 50대 항소심서도 '징역 12년'

여성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이고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모(59)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징역 12년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21일 오후 4시경 전주시의 한 치과 화장실 문 앞에서 B모(44·여)씨의 왼쪽 가슴을 흉기로 찔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일 A씨는 마스크와 모자, 장갑, 흉기 등을 챙겨 광주에서 연고가 없는 전주로 이동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큰 사고를 치고 싶었다. 무언가를 빼앗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1심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2년이 선고되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흉기로 찌른 부위 등을 감안할 때 강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몸싸움 과정에서 도주를 위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찌른 점,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강도범죄로 3차례나 처벌받았는데 또 유사 범행을 저지른 점을 종합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강석훈 기자